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음 9월 29일) 제193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첫 삽 뚫다

전주에서 문화기공식 개최

전주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핵심공간이자 전주 시민의 자긍심이 될 전라감영 복원공사가 첫 삽을 떴다.

전주시와 전북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는 16일 전라감영 복원 예정지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이명우 전라감영 복원재창조 위원회 위원장, 이재운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도의원과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계인사, 기관 단체장, 언론사 및 전라감영 후손 문중 대표,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감영의 재창조 복원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문화기공식을 개최했다.



16일 전주에서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문화 기공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지경다지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선화당 등 핵심 7동 복원 시, 복원될 건물 활용 구체적 방안 결정 창의적 콘텐츠로 만들기로 미래 핵심공간 변모 기대

'전라감영 복원, 하늘에 아뢰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문화기공식은 길놀이 풍물공연과 설장고 공연 등 식전 행사에 이어 공사의 시작을 하늘과 땅에 고하는 개기 고유제가 봉행됐다.

또, 모듬북 축하공연과 경과보고, 축사, 전라감영 역사 및 복원사업 설명, 지경다지기 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고유제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첫 술잔을 바치는 초헌관을 맡았으며, 두 번째 술잔을 바치는 아헌관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종헌관은 이명우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시는 이날 문화기공식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 말까지 총사업비 84억원을 투입해 조선시대 호남을 관할했던 전라감영을 재창조 복원할 예정이다.

복원대상은 선화당과 내아, 내아행랑, 관공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전라감영 핵심건물 7동이다.

특히, 시는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복원될 건물 활용의 구체적인 방향과 콘텐츠를 결정하고, 향후 전라감영이 박제된 공간이 아닌 창의적인 콘텐츠로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전라감영은 한옥마을과 경기전, 전동성당, 풍남문, 풍패지관까지 이어지는 전통문화유산의 거리로 재창조돼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역사·문화 중심지로 거듭나 전주의 영광을

재현하게 될 것"이라며 "전라도 천년 동안 중심이 되어온 전북이 '전북 자존의 시대'를 힘차게 열고, 천년을 이어온 생명력으로 더 크게 응징할 수 있도록,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청사 이전 무렵부터 약 20년 동안 전라감영 복원을 위해 때로는 건축, 도시재생, 콘텐츠 분야 전문가와 때로는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여 복원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 왔다"라며 "복원될 전라감영은 전주의 자긍심이자 아시아문화심장터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전주의 미래가 담긴 핵심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라감영이 복원되면 전주의 위상 확립과 전주 시민의 자존감 회복, 구도심의 활성화, 전주한옥마을의 외연확장 등을 전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화기공식에서는 창녕 조씨 대종회 등 전라감영의 주역인 전라감영 후손 문중 10여 곳에서 참석해 전라감영 복원을 축하하는 고유제를 함께 올림으로써 전라감영 복원의 의미를 더했다. /김민근 기자

수능 연기 혼란 최소화

도교육청, 문답지 보안 최고수준 강화

자교 배치 13교, 시험실 좌석 전면 재배치

전북도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문답지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앞으로 일주일 간 발생할 지 모를 돌발 사태 등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능시험 문답지는 6개 시험지구에 보관되며 보안경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승환 교육감은 "전담팀 운영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능 연기에 따라 시험실·좌석 등도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시험장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미 부착돼 있는 스티커 등 부착물을 모두 제거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수험생이 재학생인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른바 '자교 배치' 13교(시단위 6교, 군단위 7교)는 시험실 좌석도 전면 재배치할 계획이다.

수험표는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재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수거해 진학부서 책임하에 보관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수능 연기일 23일에도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민간의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 교육부에는 이미 확정된 수능 일정을 순차적으로 연기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은 물론 인근지역 수험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기숙사원 재수생들의 실태 파악 등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수능 연기, 안전·공정성 위해 불가피"

문 대통령 "수험생·학부모 당혹 짐작... 차질 없도록 철저 대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포항 지진으로 인한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결정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어제 종합적인 상황 판단 끝에 수능 연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이후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능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결정을 흔쾌히 수용하고 동의해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포항과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위로도 잊지 않았다.

이어 "정부는 집을 떠나 고생하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이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도 힘을 모아 신속하게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며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발전소, 공단, 철도 등 국가 기반 시설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연재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 할 수는 있다"며 "정부는 지금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상황이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매일 INDEX

2면 -전병헌 총정무수석비서관의 표명

3면 -취국정원, 빼들린 특별비 더 있다

5면 -선미촌 문화재생산업 성과와 비전

6면 -현대차 전기버스 1호차 출고 기념식

깊어 가는 가을!
더욱더 생각나는 우리 먹거리!
가을에도 역시 단풍미인쇼핑몰입니다.

정읍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

365일! 100% 무료배송

택배비 100% 지원(정읍시청) 회원가입 후 구매시 적립금 2% 지급
매주 1일 특가 할인 이벤트 진행

고구마, 등근마, 대봉시, 사과, 쌍화차, 가래떡

http://danpoongmall.jeongeup.go.kr 080-535-4345(무료), 063-532-4345